문수가 선택한 건 이근원통

〈耳根圓通〉



지안 스님의 〈능엄경〉 강해

㉚ 이근원통

〈원문〉 여래가 문수사리법왕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지금 여기 25무학인, 대보살들과 아라한들을 보라. 각각 처음에 도를 이룬 방편을 말하여 다 진실한 원통을 닦아 익혔다고 말하니 저들의 수행에 실로 우열과 전후의 차별이 없겠으나 내가 지금 아난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면 25행에서 어느 것이 아난의 근성에 적당하겠는가? 겸하여 내가 멸도한 뒤 이 세계 중생들이 보살승에 들어가 무상도를 구하려면 어느 방편으로 쉽게 성취할 수 있겠는가?"

문수가 부처님의 뜻을 받들고 발에 절을 하고 게송을 설해 부처님께 아뢰었다.

"깨달음의 바다 그 성품이 맑고 둥글어, 둥글고 밝은 깨달음이 원래 미묘합니다. 미망하여 허공이 있고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성립하며, 망상이 맑아져 국토가 이뤄지고 지각하는 것이 중생입니다. 허공이 대각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다에 한 거품이 일어남과 같으며 유루(有漏)의 미진 국토가 모두 허공으로부터 생기는 바입니다. 거품이 멸하면 허공도 본래 없거니 하물며 다시 삼유(三有)가 있겠습니까? 근원으로 돌아가는 성품이 둘이 아니지만, 방편으로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열반의 마음을 성취하려면 관세음이 으뜸이 되며 그 나머지 방편은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일에 맞춰 진로를 버리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강설〉 부처님이 문수보살에게 25원통 중 어느 것이 아난의 근기와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말세 중생들에게 알맞는지 하나를 추천해 보라고 하니 문수보살이 게송을 읊고 관세음보살의 이근원통(耳根圓通)을 선택하는 장면이다. 문수가 읊은 게송은 매우 심오하여 '능엄철학' 이 들어 있다는 말까지 하였다. 깨달음의 바다 각해(覺海)의 성품이 맑고 둥글어 미묘하기 짝이 없는데, 이 각해에 대한 미망(迷妄)으로 허공이 있게 되었고 허공을 의지해 세계가 성립되었다는 세계 성립의 원초적인 근원을 밝히고 있다. 이른바 세계기시(世界起始)의 설명이다. 이 대목에서 엄청난 비유가 설해지는데 "허공이 대각(大覺) 가운데서 생기는 것이 바다에 한 물거품이 일어난 것과 같다."는 말이다. 허공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공간개념으로 이해하는 말이다. 우주공간이 모두 허공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허공 자체는 무한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정된 범위가 없으므로 초공간이라 할까. 아무튼 무한인 것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바다에 일어난 한 물거품에 비유한 것이다. 바다에 한 물거품이 생기듯이 각해에서 허공이 생겼다는 것이다. 각해는 〈능엄경〉의 핵심 용어 여래장묘진여성(如來藏妙眞如性)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각체(覺體)요, 심체(心體)다. 이를 대각(大覺)이라 하여 이것이 허공의 아버지(父)란 말이다. 여래장묘진여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라는 것을 앞에서 누누이 밝혔다.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난 생각은 어떤 개념을 만들어 시간적 의식과 공간적 의식이 곧잘 되어버린다. 의식화되는 것은 시공을 벗어나지 못한다. 따라서 시공을 벗어나 의식화될 수 없는 것이 각체다. "유루(有漏) 미진국이 허공으로부터 생겼다"고 하는 것은 허공 속에 있는 만유의 생멸 현상 아웃라인(out-line)을 말한다. 허공이 물거품이라면 물거품이 없어지면 허공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생의 세계인 삼유(三有=三界)마저 있을 수 없다. 근원으로 돌아가면 각해의 성(性)뿐이다. 이 성에 돌아가면 통하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성인의 "성품(聖性)으로는 통하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였다. 25원통이 성품 자리에서는 공통이지만 공부를 할 때는 차별이 있어 더디고 빠른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근원통을 제외한 24원통의 단점을 하나하나 열거하다가 마지막에 이근원통을 추천한다. 이근원통은 반문문성(反問聞性)하는 공부다. 미래의 닦아 배울 사람(修學人)이 이를 의지해 공부할 것을 권하며, 관세음보살뿐만 아니라, 문수보살 자신도 이를 통해 깨달음을 증득했다고 부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원통식 갖추면 육신통 생긴다



구선 스님의 〈묘법연화경〉 강의

㉚ 진여문의 보시바라밀

보살이 현전지에 들어가면 분리시켰던 자기 생멸심도 중간 반야해탈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면 보살의 보살핌이 없어도 생멸심 스스로가 대적정과 대자비를 행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멸진정을 성취한 것이 아니다. 때문에 보살의 관심과 보살핌이 필요하다. 현전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암마라식을 돈독하게 갖추는 것이다. 암마라식으로 이루어진 육근을 정비해서 보살의 눈, 귀, 코, 입, 몸, 생각이 원만하게 갖추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이때에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이다. 진여보살이 멸진정의 과정에서 분리시킨 생멸심은 두 가지 성향의 존재 양태를 갖고 있다. 영혼으로 존재하는 것과 육체로 존재하는 것이다.

육체를 갖고 있을 때 진여심이 분리되면 진여심은 진여보살이 되고 생멸심은 육체를 갖고 살아가게 된다. 열반에 들면서 진여심과 생멸심이 분리되면 진여심은 보살이 되고 생멸심은 영혼으로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지에서부터 6지까지 앞서 제시했던 방법으로 보시 바라밀을 행한다. 비상비비상처정을 통해 생사의 몸을 여의고 유(有)의 몸을 갖추게 되면 생멸신과 진여신을 분리시키지 않고 보살도에 들어간다. 이런 경우에는 보시바라밀을 행하는 방법과 대상이 달라진다.

초지에서 10지 과정 전체에 걸쳐 십주(十住)의 공법이 함께 쓰이고, 보시의 대상도 생멸심이 아니고 양신이 된다. 이런 경우는 수능엄삼매의 과정으로 6바라밀이 진행이 된다. 7지 원행지부터는 보시바라밀의 대상과 방법이 달라진다. 원행지에서는 생멸문에서 살아가고 있는 반연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보시바라밀이다. 자기 생멸심과 반연중생은 업식을 공유하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때문에 자기 생멸심이 해탈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연중생을 제도해야 한다. 그 역할을 진여보살이 담당하면서 원행지가 시작된다. 반연 중생을 제도하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보살의 암마라식이 원만해진다. 그러면서 불공여래장이 장엄해진다. 보살이 생멸문을 멀리 여행을 하는 것이 원행지이다. 원행지에서는 12연기의 과정을 통해 인연 지어진 반연 중생들을 제도한다. 먼저 생사의 과정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을 제도한다. 그다음에 유(有)의 과정을 통해 맺어진 인연들을 제도한다. 취(取) 인연, 애(愛) 인연, 수(受) 인연, 촉(觸) 인연, 육입(六入) 인연들을 차례대로 제도한다. 암마라식이 활용되고 삼신구족행으로 제도한다. 8지 부동지의 보시 바라밀은 본제의 부동함으로 불퇴전을 성취하고 암마라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난승지에 들어가서도 걸림 없고, 일치된 중생의 심과 식이 장애가 되지 않으며, 삼신구족행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고, 본제를 이루는 세 가지 요소가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를 부동지라 한다. 각성의 퇴전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불퇴전이라 하고 어떤 중생을 만나더라도 본제의 세 가지 요소가 훼손되지 않는다고 해서 부동지라 한다. 암마라식이 완성되면 진여문의 다른 보살들과 교류할 수 있게 된다. 특히 10지를 성취한 상위 보살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때 10지 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게 된다. 지장보살을 만나면 지장보살에게 배우고 문수보살을 만나면 문수보살에게 배운다. 보현보살을 만나면 육근원통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원통식을 갖추게 된다. 암마라식으로 이루어진 육근을 원통수행으로 제도하게 되면 모든 식의 바탕 안에 적멸상이 갖추어진다. 이것을 원통식이라한다. 육근원통의 수행은 부동지에서 시작해서 선혜지에서 완성된다. 9지 선혜지에서 행해지는 보시 바라밀은 역무육입진(亦無六入盡)하는 것이다. 육입의 과정을 통해 인연되어진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것이 역무육입진이다. 원통식이 활용된다. 원통식이 갖추어지면 6신통이 생겨난다. 천이통, 천안통, 숙명통, 타심통, 신족통, 누진통이 6신통이다.

〈영양 연화사 주지〉



지흠 스님의 〈능가경〉 강설

㉚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의식이 만들어 낸 허상

어디에도 없는 세상과 어디에도 없는 나를 만들어 놓으면 본질에 대해 궁구하더라도 끝내 그 본질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접근조차 하지 못한다. 기본적인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방향성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 진리를 탐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배우는 방식처럼 앞으로 진보하는 것이 아니다. 먼저 배우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객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우는 자가 살아온 나이와 경험은 진리와는 아무 연관성이 없음을 알고, 출발하는 순간부터 마음으로 일으키는 분별을 쉬고, 옳고 그름의 판단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바르게 배우다가도 바로 몸이 살아온 나이와 경험이 그 배운 것을 덮어버리게 된다.

아마도 대다수의 수행자들은 순탄하고 어려움 없이 저절로 된다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을 어려워하고 어렵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행은 아주 쉽고 간단한 이치이다. 어려운 이치가 아니다. 먼저 수행할 때는 지식도 필요 없고, 느낌도 필요 없고, 체험도 필요 없고, 체득도 필요 없음을 알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러한 것을 얻기 위해 불필요한 노력에 시간을 보내면서 힘들어 한다. 만약 그렇게 하고 있다면 바로 멈추는 것이 지혜이다. 수행은 무엇을 얻고 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얻고 알아야 하는 것이 없음을 알고,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들은 의식(마음)이 만들어 낸 허상인 것을 알아서 더 이상 발을 앞으로 디딜 틈이 없어야 한다. 혹여 텅 빔을 알았다는 마음을 낼 수 있겠지만 그것 또한 허깨비일 뿐이다.

"사대의 인연이 화합하면 색상의 차이를 조성할 수 있지만, 사대가 조성한 색상은 그 조성하는 주체와 대상이 모두 유심 망상이 취하는 주체와 대상이네. 만약 주체와 대상이 망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사물의 자성이 있다거나 없다는 두 망견을 벗어날 수 있네."

여기까지 이야기해놓은 모든 것들이 잡다한 견해들이고 불필요한 논리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논리나 견해들이 수행에서 단비 같은 역할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갈증을 더 유발하는 설탕물이다. 설탕물을 많이 마신다고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다. 갈증을 해소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그냥 맑은 물이면 충분하다. 이것이 원하기만 한다면 백척간두진일보(百尺竿頭進一步)한 마지막 언어를 사용하여 마무리 아닌 마무리를 하게 된다.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나' 라고 해온 몸과 마음은 '내' 가 아니고, '나의 것' 이 아니고, '나의 자아' 가 아니라고 바르게 알고, 몸과 마음이 만들어 놓은 허상에 대해 견해와 논리를 펴지 않으므로 허물이 생기는 일이 없음을 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이든 그것은 마음의 조작일 뿐이지, 더 이상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더 이상 모르는 것도 아닌 그저 토끼뿔로 알면 된다. 만약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부족하다고 느낀다면 아마도 그에게는 아직까지 오온을 '나' 라고 하는 망념이 남아 있을 뿐이다. 그러면서 망념을 사라지게 하는 수행을 하거나, 그 망념을 좋은 마음으로 바꾸려는 수행을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행은 닦는 것이 아니다. 닦아서 연마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다. 수행은 수행하는 자의 실체를 알아내는 것이다. 많은 태어남 동안 번뇌로 똘똘 뭉친 '나' 아닌 것에 대해 올바른 지혜로써 '내' 가 아님을 밝혀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느낌이든, 지각이든, 의도이든, 의식이든지 간에 그 출발이 '나' 로 시작하니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로 헤매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 생각, 생각, 이어지는 그 생각의 끊음이 아닌, 그 생각 속에 있는 듯 없는 듯한 '나' 라고 하는 그 범인의 끊음을 말하는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그 '나' 는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신출귀몰하여 모든 것에 붙어 '나' 라고 할 필요 없이 '나' 로 되어버리니 그 자가 일으키는 망념에 금방 속아서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그 흐르는 생각 속에 끌려가지만 않으면 지금까지 '나' 라고 알고 있던 그 물질, 느낌, 지각, 의도, 의식의 혼란에서 '내가 아님' 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속는 일 없이 다시 발을 움직일 일도 없어진다.

〈(사)여시아문 선원장〉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5,000원
가루자죽염	230g	82,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50,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90,000원
휴대용 알갱이자죽염	20g	9,000원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20,000원
	250g	10,000원

※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길381-4 www.msjy.co.kr

